

English Worship Service

[Westminster Hall, 11:15 am]

[Pastor: Daniel J. Kim]

Prelude	Pianist
* Call to Worship	Pastor
Praise & Worship	Praise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T. H. T. Ranjan (Broth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Genesis 3:13-24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Judgment and Grace”
* Hymn	338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Congregation

(* Please stand)

“Judgment and Grace”

The beginning of humanity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a specially privileged relationship with God as individuals created in His own image, representing His wisdom and glory to the world. But what began with such intimacy with God in the Garden of Eden would turn out to be the most tragic of all human experiences—alienation with God and with each other. For humans, sin and rebellion against God would result in anguish of guilt and shame. Moreover, sin and rebellion would result in God's pronouncement of judgment upon humanity. The judgment of God, however, would be accompanied by hope of His redemptive grace. The judgment that came upon the woman was particularly related to her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 and her future children: pain of childbearing—"with pain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v.16a)—and subordination to male authority—"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and he will rule over you" (v.16b). This judgment, however, is coupled with what is known as "proto-gospel"—the proclamation of future grace of redemption through the Messiah who is to be birthed through human lineage: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Gen. 3:15). The judgment that came upon the man was particularly related to his relationship with his work and occupation—"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through painful toil you wi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 By the sweat of your brow you will eat your food until you return to the ground; since from it you were taken;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 (v.19). This judgment of man, however, is coupled with God's provisional covering of "shame"—"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v.21)—and protection from further violation of divine protocol—"After he drove the man out, he placed on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flashing back and forth to guard the way to the tree of life." Moreover, the divine accountability for sin and rebellion of humanity extends to the judgment of the source of Satan/serpent—"Because you have done this, Cursed are you ..." (v.14)—as well as the judgment of nature—"Cursed is the ground because of you ... It will produce thorns and thistles for you ..." (vv.17b-18). Thus, the Genesis 3 text regarding sin and judgment provides us with an overview of the dire consequences of sin for all created entities: Satan, humanity (male and female), and nature itself. But Genesis 3 text also provides us with the hope for redemption (through Christ) that is to come.

Announcements

We warmly welcome all newcomers to our worship service.

We invite you to join us for fellowship at Room 104 after the service.

If you have any special prayer requests, please submit them in the prayer box located at the rear, so that we may continue to pray for you.

Sunday Study Groups are as follows:

- 9:30 am (Room 104) - Spiritual Disciplines and Intercession (led by Pastor Daniel)
- 1:30 pm (Outdoor Cafe) - Youth Bible Study (led by Brother Jimmy Eppley)
- 1:30 pm (Room 902) - Young Adult Bible Study (led by Pastor David John)
- 1:00 pm (Room 601) - Adult Bible Study (led by Brother Ranjan)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학교 예배 및 부서안내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예배 및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603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603 호
유 년 부	오전 9시	701 호	예 바 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9시	601 호	예 바 다 부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유초등부 연합 2부예배	오전 11시20분	701 호	장 년 1 부	오전 10시	본 당	
꿈나무영어성품스쿨	오후 4시	701 호	장 년 2 부	오후 3시30분	702 호	
어린이 찬양예배(주일)	오후 5시		소요리문답부	오전 10시20분	903 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 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중 등 부	오전 9시	501 호	새 가 족 부	원입반	오전 10시20분	602 호
고 등 부	오전 9시	101 호		전입반	오후 12시40분	
청년 1부	오후 2시	101 호	세 례 교 육 부	1부	오전 10시20분	607 호
청년 2부	오후 2시	1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1 호	직분자양성부	오후 12시40분	606 호	
			새가족환영부	오후 12시40분	802 호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교육목사 임규현 심진희 정대은	교육상담목사 양세라 협동목사 김철홍 김다니엘	전도사(전도담당) 배경애
전도사(교육담당) 구분혜 이진광 고수은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곱주하나, 김모세 이한나, 김원희 동이시애,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강경혜, 박진선, 박병연(카자흐스탄) 스프로모바리요, 조남혜, 방광라(세 시), 이재을(백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누(인도), 정상진(홍성인(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행영(러시아), 김인사(현혜옥(아르헨티나), 황남가(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수일본), 김나형 · 오정녀(캐나다),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훌쿠야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랄 사무알, 레이, 난, 쌍 싹다 사우, 키움 랑, 흐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마카엘(미얀마),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버사 이경섭 알로르 비사루노도 보디소프 린름 수만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회 장 로 회 서 울 교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중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박 노 철
Senior Pastor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사도 바울, 그의 다툼과 화해” ("The Fight and Reconciliation of Apostle Paul")

■ 행 15:35-4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은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사도바울일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의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사도 바울도 다투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바울을 다소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요한의 일로 심하게 다툼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바울은 지난 제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몸이 좋지 않아 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께 가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요한의 문제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누가 더 옳고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다투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지만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더욱 분쟁을 멈추고 다툼을 종식시키며 서로 헤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도 바울의 허물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채 결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제1차 전도여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견고하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성령의 권능으로 마칠 수 있었던 과정들과 이후 바울이 어떻게 체포되고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 못지 않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적인 허물이 드러났지만 그로 인해 복음의 사역이 더욱 확장하여 쓰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 사도 바울은 화해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나바와의 다툼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화해하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즈음 감옥에서 보낼 때 디모데에게 자신을 찾으러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유는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툼 때에는 마가가 사역에 유익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마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 (몬 1:24)라고 소개하였으며 마가와 베드로 사도간에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일컬어 “내 아들” 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벧전 5:13).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전혀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 다투게 되고 그리하여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서로 결별하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화해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를 했더니 예전에 없던 큰 사랑과 연합과 일치들 이루어 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깊은 사랑을 주고 받았지만 이제는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다툼과 미움의 벽을 허물고 화해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최양진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사 35: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16 (구주강림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96(94)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 40:1-5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박노철 목사
	(The Heart Waiting for Jesus)	
* 찬 송 Hymn	104(104)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4:9-10	인 도 자
찬 송	92(97) / 86(86)	다 함 께
기 도	우상테 집사	
성 경	삼상 6:7-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설 교 자
* 찬 송	79(4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김유경 권사 II부: 이명아 권사	
성 경	마 25:14-3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착하고 충성된 종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하·홍혜란김양언
설 교 박노철·박영준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교 회 소 식

◆ 모 임

- 도르가 전도회 월례회 / 4일(주) 오후12시40분 706호
- 제2권사회 직장인 모임 / 4일(주) 3부 예배 후 802호
- 이미용 봉사(동명복지관 한울정신지체 장애센터) / 6일(화) 오전8시50분 104호
- 전 도 / 4일(주) 주일전도 : 전교인(1,2,3부 예배 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실 때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순례자와 전도지를 가지고 이웃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일(화)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대치삼성 도곡래슬 롯데캐슬 진달래 대치 I-park, 삼성동힐스테이트 개포주)

오전 10시 70인전도대 화요기도팀(609호)

7일(수)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수요기도팀(609호), 문서전도팀(603호)

오후 1시 70인전도대 특례생 학부모 기도팀(903호)

오후 1시30분 70인전도대 수요노방팀 도르가 전도회(607호)

오후 8시 70인전도대 수요아카데미 스테이션(한티공원)

8일(목) 오전 10시 70인전도대 축호팀(은마 미도 대치현대 역삼러키 개포주공,7단지, 래미안 대치 팰리스)

오전 10시 70인전도대 목요기도팀 603호(11시 202호)

10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토요노방팀 발립 선교회(한티공원)

◆ 알 림

- 새가족 등록 /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호-칼빈홀)
- Baby-sitting 운영 / 수요예배와 주일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유아를 위해 403호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베들레헴 홀)
- 영어동시통역 (통역: 김사라 권사) / 2부 예배 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동시통역이 있습니다
동시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현장에서 안내원들에게 Earphone을 받아 사용하신 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arphones are available to help your service,

please ask an usher at the door to assist you☞ (Interpreter : Sarah Kim)

- 세례식 신청 마감 / 12월 세례식이 12월 18일(주일) 12,3부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7호 : 12월4일 주일

문답총정리는 12월 11일(주일) 12부 예배 후 607호 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12월 11일(주일) 오후 1시 50분 602호 에서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은 607호 세계교육부로 문의바람

뒷면으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이정 열2	14교구	까봉팀	인내팀	정애순	13-30	마리아	화평팀	송재근	교육2국	청년2부	백경화
이복남	4-11	마리아	수요노방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상담 주중에도 상담 가능 / 주일 오전 11시30분-오 1시 (310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 의료 상담 / 안인호(아비인후과) 주일 오전10시30분 - 오전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902-5922

◆ 결 혼

- 차주호 군(14교구 차도훈 장로, 남태영 권사의 장남)과 박수련 양(박찬호 집사 김미라 집사의 차녀 / 12월10일(토) 오후시 서울교회 본당2층)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제 길을 가다가 양심에 괴로움을 갖고 배 밀창에 들어가 잠을 자던 아밋 대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께서 태풍까지 동원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줄은 알지를 못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심판 소리에 귀를 막고 잠만 자는 요나처럼 제 길만 가고 있지 않은가. 배 밀창에서 잠을 자던 요나는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고 풍랑을 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고 진실과 감사와 헌신의 서원을 참회의 기도와 함께 토해 내게 하셨다. 그리고 자격을 상실 당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이들이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우상이나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굽히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